동우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제252호 |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홍정수(편집국) 김성모(미래전략연구소) 이원탁(AD본부) 손수영(마케팅본부) 신강혁(문화사업본부) 이진걸(경영지원국) 남형주(재경국) 김성규(뉴센테니얼본부) 안주영(편성본부) 배한수(제작본부) 김민지(보도본부) 유정균(전략기획본부) 김혜성(콘텐츠사업본부) 박동엽(경영지원본부) 양지우(동아E&D) 장경국(동아닷컴) 한결(채널A비앤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939)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가 동아미디어센터

신입 기자, PD, CD들이 보낸 치열했던 인턴생활

인턴 채용연계 전형으로 입사한 2020년 수습 저널리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경험한 DAMG

새로 입사한 신문기자, 방송기자, 매거진기자 등 수습 저널리스트와 방송PD, 드라마PD, CD(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26명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인촌 고택을 방문해 손에 사원증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동아미디어그룹에서 어느 누구보다 올해 가을을 뜨겁게 보낸 이들이 있다. 2020년 채용연계형 인턴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한 수습 저널리스트(신문기자 9명, 방송기자 5명, 매거진기자 3명)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방송PD 4명, 드라마PD 1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4명) 26명이다.

이들은 저널리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일하기 위해 지금까지 쏟아온 열정을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서류전형을 거쳤다. 또 8주 간의 인턴 현장실습, 발표 형식의 최종면접 프로그램 'Back to the 20s' 등 총 4개월에 이르는 긴 전형을 통과했다. 각 단계에서 다양한 연차와 직급의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 총 200여 명이 지원자들의 역량과 열정을 평가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당당한 구성원이 된 이들의 치열한 인턴생활을 돌아봤다.

혹독한 성장의 시간, 8주 간의 인턴 실습

2020년 동아미디어그룹 수습기자·PD·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는 채용연계형 인턴으로만 선발했다.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채용연계형 인턴을 올해부터 전면 확대한 것이다. 이는 업(業)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온, 열정 있는 인재를 선별해 채용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8주 간의 인턴 실습은 혹독한 실전의 연속이었다. 현장에서 선배 기자·PD·CD의 날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동아일보·채널A호에 승선할 수 없음을 뜻했다.

유채연 수습기자(편집국)는 단풍놀이 방역지침 현장을 취재하러 '1일 2산(山)' 날다람쥐 취재 경험을 했다. 멘토의 조언에 따라 생생한 현장을 포착하겠다는 일념하에 북한산 대동문 쉼터에서 취재를 하다가 우이선 경전철 방향 출구로 뛰다시피 하산해 택시를 타고 다시 인왕산 정상에 올랐다.

김호영 수습기자(보도본부)는 매번 경찰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며 좌절감을 느꼈지만 전쟁 같은 현장에서 인천 라면형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단독 확보한 뒤 큰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멘토의 단비 같은 격려와 코칭은 성장의 촉진제가 됐다.

오홍석 수습기자(출판국)는 대학 상권 르포를 준비하며 취재 부족으로 현장에 가길 반복해야 했다. 멘토가 기사 초안을 빨간펜으로 뒤덮으면서도 "지금 잘하는 사람보다 앞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격려했을 때 그는 현장에 다시 갈 힘을 얻었다.

곽진우 수습PD(드라마센터)는 현장실습 초반 밤 새워 만든 30초짜리 티저 영상을 두고 멘토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라고 되물었을 때를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 순간"이라고 기억했다.

김영진 수습PD(제작본부)는 티저 영상 편집 과제를 하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속 이틀 밤을 새웠다. 김 수습PD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은 또렷했고 마음은 설렜다"며 "일주일을 쏟아 부은 3분짜리 티저 영상이 공식 채택돼 홈페이지에 올라갔을 때 정말 뿌듯했다"고 말했다.

한수희 수습CD(경영전략실)의 8주는 새로운 웹예능 포맷과 바이럴을 기획하고 아이템 회의, 구성 회의, 시뮬레이션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일의 연속이었다. 제작 현장에 따라나선 날, 선배 CD들이 촬영 현장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CD는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확고한 의지 가진 인재 선발하는 채용 혁신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의 채용 혁신은 철저한 서류심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원하는 사람은 최대 1만 자 분량까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쏟아온 열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도 충분히 제출하도록 했다. 서류심사에서 기자·PD·CD가 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인재를 추려냈다.

웹드라마 분야를 지원한 김민정 수습CD(경영전략실)는 이 같은 서류전형을 통해 발굴됐다. 김민정 CD는 국문학과 재학 시절부터 5년 간 총 11종의 출간작을 보유한 인기 웹소설 작가다. 중학교 때는 문예지 삽화를 도맡아 그리고, 대학 때는 연극동아리에서 열연하는 등 CD가 될 만한 다채로운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이 자기소개서에 빠곡하게 담겼다

철저한 서류심사를 한 데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도 작용했다. 필기시험에서 외부 시험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충정로 사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인원으로 응시자를 제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턴 선발을 위한 1차 면접에는 관련 국·실·본부·센터장급이 총 투입됐다. 1차 관문부터 각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들이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눈을 바탕으로 함께 일할 인재를 선별하도록 했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한 인턴 선발부터 8주 간의 현장실습까지 전체 전형에서 평가자로 참여한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은 사회부 현장기자와 제작 PD, CD에서부터 부서장들까지 총 200여 명에 이른다.

임원진이 묻고 지원자가 답하는 식으로 진행하던 최종면접 역시 전면 개편했다. 콘텐츠를 소비해왔고, 생산하려는 청년의 인사이트를 동아미디어그룹 리더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발표 형식의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 'Back to the 20s'를 도입했다.

'언택트 시대의 저널리즘(방송기자)', '방송사는 이제 1020세대를 잃어버렸나(방송PD)', '우리 채널은 ○○○ 드라마를 잘 만드는 명가(名家)가 돼야 한다(드라마PD)',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 만들고 싶은 콘텐츠(CD)' 등 직군별로 제시된 주제에 지원자들의 도전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2030이 여론 주도층이 되는 미래에 신문이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기 위한 방안(신문기자)'에 대해 발표한 유채연 수습기자는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수습 저널리스트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26명은 8주간의 현장실습을 포함해 치열했던 채용전형을 거치며 저널리스트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단단하게 다져졌다. 이들은 4주 간의 교육을 마치면 이달 21일부터 일선에서 뛸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조동주

“동아 100년을 맞아 2020년 한 해 동안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했습니다”

‘동감_백년인연’ 마지막 여정, 40년 전 한국인 최초 태평양 횡단한 파랑새호 요트맨을 만나다

11월 24일 오전 11시 40분. 고풍스런 마호가니 계단을 올라가 일민미술관 3층 일민선생 기념실(옛 집무실)에 들어선 60대 남성 두 명은 탄성을 질렀다.

“와, 40년 전 그대로네! 우리가 여기, 김상만 회장님이 저 쪽에 앉지 않았나. 파이프 물고 툭툭 던지듯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네.”

전시해설사 안내에 따라 고풍스런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한국인 최초 태평양 요트 횡단을 꿈꾸던 28세 청년으로 돌아간 표정이었다.

“처음 뵙던 날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화하시더니 바로 해결해 주셨죠.”(이재웅 씨)

“태평양 횡단에 성공하고 다시 뵈었을 때 ‘큰 공을 세웠다’고 축하해 주셨어요.”(노영문 알오에이치산업 대표)

두 사람은 창간 10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동감_백년인연’ 캠페인의 마지막 손님으로 초대됐다. 특별 전시로 일반에 처음 공개된 일민 선생 옛 집무실을 찾았다. 40년 전 동아일보와 함께 태평양 횡단 도전의 의지를 다졌던 그 장소다.

파랑새호 영웅들, 파랑새 들고 기념사진

보성중·신일고 동창인 이 씨, 노 씨는 1980년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파랑새호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국민적 영웅이 됐다. 그해 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인물’로 뽑혔다.

앞서 동아일보가 후원한 동아갈매기호가 1977년, 1978년 잇달아 요트 횡단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을 정도로 태평양 요트 횡단은 한국 해양인의 오랜 꿈이었다.

결과는 성공이었지만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돛 일부가 파손돼 항해가 예정보다 20일 가량 길어졌다. 이 씨는 “돈이 부족해 해상용이 아니라 일반 무선 장비를 샀는데 보름 만에 고장났다. 한참 소식을 못 전하다 중간에 일본 어선을 만나 간신히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했다. 바람과 파도, 향수병과 싸우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끝에 75일 만에 미국 로스앤젤러스에 도착했다.

이 씨와 노 씨가 당시 요트 이름을 파랑새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 노 씨는 “농민과 노동자 모두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동학혁명’에서 따와 이런 이름을 달았다. 파랑새호 진수식도 (4·19혁명 기념일인) 4월 19일에 열려고 했지만 날씨 때문에 결국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를 저어 태평양을 건넌 후배 최준호 씨(40)도 함께 초청됐다. 최 씨는 동아일보에서 파랑새호 기사를 보고 전율을 느껴 도전에 나섰다고 했다. “태어난 날 있었던 일이 궁금해 1980년 8월 7일 발행된 옛날 신문을 보다 동아일보에서 두 분의 사진을 보고 전율을 느꼈죠.” 최 씨는 그해 외국인들과 팀을 이뤄 직접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는 ‘오션 로잉’ 방식으로 태평양을 건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를 출발해 하와이에 도착하는 ‘1회 그레이트 퍼시픽 레이스’에 2014년 6월 참가한 것이다. 43일 동안 노를 저어 13개 팀 중 1위로 완주했다.

세 모험가는 일민미술관을 둘러본 뒤 신문박물관의 파랑새호 요트 사진 앞에서 동아백년 파랑새를 든 채 기념사진을 찍었다. 최 씨는 “두 영웅을 만나는 꿈이 실현돼 영광”이라며 감격했다.

관람 후 세종문화회관 한식당에서 이들과 만난 임채청 부사장은 “대단하신 분들”이라며 도전정신을 치하했다. 또 동아백년 파랑새와 함께 태평양 횡단 사진·지면이 담긴 포토북, ‘The First Korean Yachtman To Cross The Pacific Ocean’ 문구와 사진이 들어간 헌정 티셔츠 등을 증정했다.

과시성 행사 대신 진정성 있는 감사

김재호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한 과시성 행사 대신 “정말로 인연이 깊은 분들을 모시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김재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47)를 시작으로 총 8차례 백년인연 감사행사가 진행됐다.

11월 14일에는 ‘그림자 아이’ 페버 씨(21)를 찾아갔다. ‘그림자 아이’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을 뜻한다.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갇혔던 페버 씨는 동아일보 보도로 사연이 알려지면서 풀려났고 정식 비자를 얻어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 후 9월부터 광주의 한 공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영어로 자꾸 말을 걸어 곤란하다. 영어를 잘하는 게 꿈”이라는 그에게 영어 수강권과 대학 졸업을 축하하는 맞춤 양복을 선물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동아와 함께 세상을 바꿔 온 인물들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실무팀으로서 참 뜻 깊은 기회였다. 1920년 인촌 선생과 청년들이 쏘아 올린 꿈을 현실로 만든 것은 그들의 용기와 도전,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 덕분이란 걸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뉴센테니얼본부 싱크퓨처팀 장원재

▼ 45년만의 감사장 (3/23)

평생 독자 아버지를 다룬 연극으로 동아연극상을 받은 김재엽 한예종 교수를 신문박물관에 초청해 아버지 실명이 들어간 백지광고 감사장과 메달 등을 증정하고 감사를 전했다.

▼ 동아의인 (5/20)

부정선거 첫 고발자로 동아일보에서 정년을 채운 고 박재표 순경 유족(오른쪽부터 3명)을 찾아 48년 전 고인의 육성과 사진 지면 등이 담긴 소책자 등을 증정하고 감사를 전했다.

▼ 백년의 동반자 (6/17)

동아일보와 한 세기 동안 인연을 맺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오른쪽)를 중앙고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기고 인터뷰 등을 묶어 만든 책자 등을 증정했다.

▼ 1987의 용기 (6/30)

박종철 사건의 진상을 증언해 6월 항쟁의 계기를 만든 오연상 의사(왼쪽)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아카이브 사진을 담은 액자와 고교시절 낸 백지광고 지면 및 감사메달을 증정했다.

▼ 6월의 그날 (7/16)

삼풍백화점 참사 때 본보 차를 타고 출동해 인명을 구한 경광숙 전 소방관(맨 오른쪽)을 만나 위령비에 헌화하고 감사의 뜻으로 사진 지면 등으로 만든 소책자 등을 증정했다.

▼ 국대 남매의 정구코트 (10/30)

역경을 극복하고 정구(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가 된 문대용 문혜경 남매(왼쪽부터)에게 사진 지면 등으로 만든 포토북과 정구 헤리티지 용품을 증정하고 스포츠 정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그림자 너머 (11/14)

본보 보도로 보호소에서 풀려나 대학 진학 후 취업까지 성공한 페버 씨(오른쪽)에게 졸업 축하 선물로 양복과 영어 수강권 등을 증정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얼굴은 가렸습니다)

▼ 파랑새의 귀환 (11/24)

이재웅 씨, 노영문 씨, 최준호 씨(왼쪽부터)가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신문박물관의 파랑새호 요트 사진 앞에서 ‘동아백년 파랑새’를 들고 있다(위 사진). 이들은 일민미술관 3층 일민선생 옛 집무실을 찾아 40년 전을 회상하기도 했다(아래 사진). 배경사진은 1980년 이 씨와 노 씨가 태평양 횡단에 성공한 직후 ‘파랑새호’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젊은 기자들의 시각으로 뉴스룸 혁신 고민하는 밀레니얼 스쿼드 본격 가동

동아미디어그룹에서 바꿔야 할 업무관행과 조직문화 함께 고민

10월 27일 첫 회의에 참석한 김성규 김도형 신아형 고도예 강성휘 송혜미 김자현 조동주 기자가 동아미디어센터 3층 '더쓰리' 앞에서 '레거시 플러스'와 관련된 이미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동아일보 편집국의 워크 리디자인을 한 단계 전진시킬 '밀레니얼 스쿼드'가 활동을 시작했다.

편집국 내 젊은 구성원들이 모인 '밀레니얼 스쿼드'는 10월 27일 킥오프(Kick-off) 미팅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전원 10년 차 이하 기자 6명으로 출범한 스쿼드는 밀레니얼 세대의 시각에서 편집국의 일하는 문화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뉴스룸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이 목표다.

스쿼드는 창간 100주년 뉴스룸 혁신 보고서 '레거시플러스'의 제안에 따라 출범했다. 전원 10년 차 이하, 절반은 5년 차 이하로 구성됐다. 젊은 기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동아미디어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 자리에서 워크 리디자인 매뉴얼(Hero 되는 방법 Here요!)이 나온 뒤 느낀 변화를 공유한 뒤 일하면서 느꼈던 업무 방식의 아쉬움을 털어놨다. 취재원과의 점심 시간을 빨리 끝내게 만드는 오후발제 시간, 부서 당번이 지면 대장을 찾아와야 하는 절차,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책임소재 때문에 복잡하게 하는 상황 등이 언급됐다.

밀레니얼 스쿼드 회의에선 벌써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영상 세대인만큼 조직 문화 개선에 영상을 적극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호응을 얻었다. 최근 화제가 된 '더쓰리(The3)' 홍보영상처럼 매뉴얼을 만들어보자는 것. 한 스쿼드원은 "포스터 디자인이 톡톡 튀긴 하지만 주목도가 영상만큼 크진 않다. 회사에 잘 들어오지 않는 기자들은 보기도 힘들다"며 "일하면서 바뀌었으면 하는 문화를 주제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면 훨씬 재밌고 피부에도 와 닿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내년 6월까지 매달 모여 '2020 뉴스룸 워크 리디자인 매뉴얼(Hero 되는 방법 Here요!)'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편집국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워크 리디자인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 2021년 버전을 만들고 2기에게 배턴을 넘기게 된다.

이들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 사항을 정리해 다음달 편집국 간부들에게 전달한 이후 본인들이 직접 연출 및 출연하는 캠페인 영상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뉴센테니얼본부 싱크퓨처팀 김성규

※밀레니얼스쿼드 활동에 뉴스룸 구성원분들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감 없이 밀레니얼스쿼드에 알려주세요. 각 스쿼드원들이나 김성규 기자(sunggyu@donga.com)에게 메일 주시면 됩니다.

'하트시그널' 정의동과 함께 내놓은 비토우 콜라보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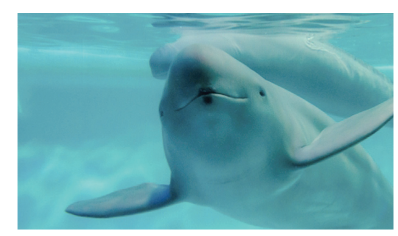
QR코드 찍고 '상괭이 프로젝트' 참여해 보세요

비토우와 정의동과 협업한 '상괭이 프로젝트' 로고 스웨트 셔츠.
웃는 모습처럼 보이는 토종 고래 상괭이(아래 사진)의 입모양을 정의동이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티셔츠는 미디어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티셔츠 프로젝트'를 전개 중인 패션 브랜드 비토우가 〈하트시그널3〉 출연자이자 멸종동물 복원 작가 정의동과 협업한 '상괭이 프로젝트(Smiling Whale Project)' 상품을 와디즈 펀딩을 통해 론칭했다.

상괭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서식하지만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오른 우리 토종 고래 상괭이를 알리고자 시작된 프로젝트다. '웃는 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 입모양을 정의동이 재해석한 스마일링 웨일 로고 스웨트 셔츠와 백 프린팅 스웨트 셔츠 2종을 선보인다.

정의동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어린 시절 아버지를 통해 접한 멸종위기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며 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우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제 멸종위기종 상괭이를 알리고자 조형 작품을 제작하고 있었



는데, 마침 비토우 브랜드와 뜻이 맞아 함께 하게 됐다"면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경남 고성군 앞바다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상괭이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며 소통하고 싶었다"고 동기를 전했다.

한편 와디즈 펀딩은 12월 28일까지 최대 할인 혜택으로 진행되며,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이라면 특별히 제작된 QR코드를 통해 바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

콘텐츠사업본부 미디어커머스팀 안미은

채널A 새 프로그램 〈산전수전 여고동창생〉, 〈Bye Seoul, 여기 살래〉

개성만점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재미 선사한다

채널A가 11월 시청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차별화 포인트로 재미를 더한 '개성만점' 프로그램들을 론칭했다.

11월 22일 첫 방송된 채널A 〈산전수전 여고동창생'(이하 여동생)〉은 '4070' 여자 연예인들의 '고등학교 입학기'라는 신선한 포맷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의 여고 동창생들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건강 트렌드를 체험하고 배우며 건강 우등생으로 거듭난다는 콘셉트이다. 선우용여, 최란, 심혜진, 김지선이 출연한다. 건강 특성화 학교인 '장수고'에 입학한 그녀들은 앞으로 각종 교과목을 통해 '건강 우등생'의 비결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요즘, 채널A 플러스 〈Bye Seoul 여기, 살래?!〉는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 과열 현상에서 한발 물러나, 전국 각지에 숨겨진 알짜배기 집을 소개하는 신개념 집 소개 프로그램이다. 매회 집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다양한 스타들이 출연해 집 찾기에 나섰다. 여타 부동산 예능 프로그램과는 달리 단순히 집 소개하는 것이 아닌, 스타가 집에 직접 살아보며 집에 대해 느낀 점을 리얼하게 평가해 차별화를 뒀다.

전략기획본부 기획제작팀 윤형석

〈산전수전 여고동창생〉 출연진(왼쪽)과 〈Bye Seoul, 여기 살래〉에 출연한 배우 강성진 부부.

히어로콘텐츠팀 '증발' 시리즈 디지털 어워드 대상, 이달의 기자상 잇달아 수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증발' 시리즈가 제9회 한국디지털저널리즘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온라인편집기자협회가 주최하고 고려대 언론대학원과 정보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상은 매년 가장 뛰어난 디지털 콘텐츠에 주어진다. 이에 앞서 한국기자협회의 제36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도 받았다.

11월 25일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히어로콘텐츠팀 이샘물 홍정수 송은석 김기윤 양회성 이호재 유성열 김성규 사지원 기자(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위 사진). 12월 3일 한국디지털저널리즘 어워드 시상식에 본보 송은석 유성열 이샘물 사지원 기자와 동아닷컴 배정한 팀장(왼쪽부터)이 참석했다(아래 사진).

편집국 편집부 박재덕 기자 한국편집상 우수상 수상

한국편집기자협회는 한 해 동안 선정된 이달의 편집상 수상작 중에서 한국편집상 수상작을 선정한다. 제26회 한국편집상 우수상으로 선정된 편집국 편집부 박재덕 기자의 8월 12일자 A1면 '雨…끝없는 쓰레기산 雨…복구인력 태부족 雨…재난예산은 바닥' 기사 PDF(오른쪽 사진).

49일째 최장 장마… "고난은 이제부터" 3중고 호소

雨… 끝없는 쓰레기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데 일손은 없고, 쓰레기는 계속 떠내려오고, 그 와중에 재난지원 예산까지 바닥났어요." (전남 구례군 관계자)

11일 장마가 역대 최장인 4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구례 곡성 등 수해 지역들은 "고난은 이제부터"라며 '삼중고(三重苦)'를 호소하고 있다. 복구 인력은 부족한데 쓰레기는 늘어가고 이재민을 지원할 곳간마저 비어 있는 것이다. 물난리가 난 뒤에도 큰비가 며칠째 이어져 마음을 졸이던 이재민들은 이제야 쑥대밭이 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구례군 구례읍의 일부 주택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나무판자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가구와 가전제품은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마늘, 배추 등 키우던 농작물도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었다.

雨… 복구인력 태부족

수도가 고장 나 진흙으로 범벅이 된 세간살이를 씻어낼 물이 없어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줘야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복구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사태 피해가 난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서는 추가 산사태를 막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수천 개의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리느라 다른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해 지역 곳곳은 흙탕물을 뒤집어쓴 가재도구와 쓰레기들이 어른 키 높이로 쌓아 올려져 있어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여기에 인근 하천과 강을 통해 떠내려온 쓰레기들까지 더해져 복구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날 충북 제천시 충주호변에서는 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더미를 걷어내느라 굴착기 4대가 바쁘게 움직였다. 충남 서천과 전남 목포 해변에도 각각 금강과 영산강 등에서 떠내려온 캔, 페트병, 폐가전 등 부유 쓰레기로 뒤덮였다. 한 현장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이미 생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이걸 언제 다 치울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 학교

수습 입사

김수현 / **동아일보**
편집국

① 사회에 '마중물'과 같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수면 밑에 숨겨져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에 먼저 다가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② 타선 절반을 차지하던 OB가 사라진 한화에게 어떤 겨울과 봄이 찾아올 지 매우 궁금합니다. 소박한 소원이 있다면 김태균 은퇴식을 직관하고 싶습니다.
③ 고려대학교 사학과

김윤이 / **동아일보**
편집국

① 지금까지 이런 기자는 없었다!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② 카메라로 세상을 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상도 찍고 편집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가 끝나 다양한 여행지에서 사진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계량위험관리학과

오승준 / **동아일보**
편집국

① 취재의 기본을 익히면서도, 끊임 없이 공부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기자의 일상, 기자의 패션, 기자의 인생 등…. 기자에 관한 모든 것에 관심이 가는 요즘입니다.
③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유채연 / **동아일보**
편집국

① 많이 듣고, 보고, 읽겠습니다. '기자' 앞에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② 요가 하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생각을 비우는 사바아사나 동작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철학 / 문화인류학과

이기욱 / **동아일보**
편집국

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든 열심히 듣고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하겠습니다.
② 3D펜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영상을 자주 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정된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기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③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환 / **동아일보**
편집국

① 자기소개서에 수화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젠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②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지에서 맞는 바람을 좋아합니다. 첫 출근 전에 어디든 많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갔다 와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③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이지윤 / **동아일보**
편집국

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깊이 듣고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
② 겨울 제철음식과 팔근육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방어는 없어서 못 먹고 팔근육은 없어서 안 붙습니다.
③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 / 경영학과

이지윤 / **동아일보**
편집국

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경림, 나목) 독자가 같이 울 수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② 일어나면 조간 문화면을 둘러봅니다. 인턴하며 있었던 문화부가 그리운가 봅니다.
③ 연세대학교 UIC 경제학과

전남혁 / **동아일보**
편집국

① 입사 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10대 기업 총수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시민들 또한 만나보고 싶습니다.
② 해외에서는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코로나 백신 개발이 진척되고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③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오홍석 / **동아일보**
출판국

① 시간이 지나도 독자들에게 읽히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기사를 씁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②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한국 경쟁사회와의 연관성입니다. 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써보고 싶습니다.
③ UC버클리 정치학과

이진수 / **동아일보**
출판국

① 여성동아의 창의적 시각이 되어 국내 1위 여성 매체로 만들겠습니다. 독자와 호흡해 나갈 수 있도록 멀티 콘텐츠 제작 능력을 활용해 Z세대 저널리스트로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② 패션계가 맞이한 '뉴노멀' 시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필(必) 환경을 비롯해 패션 테크까지 깊이 있는 소식을 전달하고자 앞서 고민합니다.
③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이규열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① 더욱 성실히 경영을 공부해 현장과 이론 모두를 아우르는 경영 전문 기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연의 젊은 피로서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독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② 펜데믹을 기회로 만든 조직. 레드오션 속에서도 혁신을 이끌어낸 조직. 제품과 서비스가 같아도 조직은 다릅니다. 앞서가는 조직들의 역량에 주목합니다.
③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김민정 / **채널A**
경영전략실

① 재미있는거 만들려고 재미있게 일하는 재미있는 CD가 되겠습니다! 인생 꿀잼핵잼!
② 요즘 눈에 보이는 귀여운 것들을 끄적끄적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은 당신을 그리고 있을지도?
③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김상하 / **채널A**
경영전략실

① 채널A의 색깔을 닮은 푸른 불꽃처럼 더 열정 넘치고 차별화된 CD가 되겠습니다.
②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콘텐츠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③ 한양대(ERICA) 문화콘텐츠학과

남희진 / **채널A**
경영전략실

① 점점 무뎌지는 일상 속에서도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겠습니다.
② 입이 심심한 순간을 어떻게 참아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유지어터가 되기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③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 국어국문학과

한수희 / **채널A**
경영전략실

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익숙함에 속아 나태해지지 않는 CD가 되겠습니다!
② 폴댄스라는 취미를 시작하며 매 수업마다 영상을 찍는데, 항상 마스크가 거슬리더라고요. 마스크 벗고 운동하고 싶습니다!
③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 멀티미디어학과

강순원 / **채널A**
제작본부

① 제가 인턴을 하며 선배님들로부터 배운 것들과 느낀 감정들을, 미래의 제 후배님들도 저로부터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PD가 되겠습니다.
② 유튜브 뮤직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음악을 한 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③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김수정 / **채널A**
제작본부

① 오랫동안 꿈꾸던 일을 하게 된 만큼 무척 설렙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② 곧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 집 꾸미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첫 월급을 타자마자 가구와 조명에 flex 해보려고 합니다!
③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창의기술경영학과

김영진 / **채널A**
제작본부

① 긍정적인 웃는 얼굴로 같이 일하고 싶은 PD가 되겠습니다!
② 영상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요즘 다양한 영화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인생 영화 추천해 주세요 :)
③ 한양대 국어국문학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임정혁 / **채널A**
제작본부

① 달과 우주에서 예능을 찍는 피디가 되어 우주적 피디가 되겠습니다!
② 최근 향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아는 게 거의 없지만 더 공부해서 향기로운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③ 고려대 사학과

곽진우 / **채널A**
드라마센터

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꾸준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② 계란빵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상암동에서도 많은 계란빵 트럭과 조우했으면 좋겠습니다!
③ 경희대 연극영화학 / 경영학과

권갑구 / **채널A**
보도본부

① 결국엔 사람이라는 말처럼 언제나 사람을 향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요즘 8090노래에 빠졌습니다. 요즘 잘 듣는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추천드립니다.
③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승희 / **채널A**
보도본부

① 오랜 시간 꿈꿔 온 기자가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벅찬 나날들입니다. 항상 이 벅참을 동력으로 초심 잃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주말마다 요리를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멍게비빔밥입니다.) 가끔씩 간 맞추는 걸 잊어 우스운 맛이 나지만 제 소소한 행복입니다:)
③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 국어교육과

김호영 / **채널A**
보도본부

① 겸손하면서도 자신 있게! 채널A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수습기자로 새롭게 시작한 만큼 좋은 기자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③ 고려대 역사교육과

이솔 / **채널A**
보도본부

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최근 영국 드라마 〈더 크라운〉에 푹 빠졌습니다. 틈만나면 영국식 영어를 혼자 따라하는데 영 어설픈 것 같습니다...ㅎㅎ
③ 토론토대 국제개발학 / 정치학 / 인류학과

전민영 / **채널A**
보도본부

① 유쾌, 상쾌, 적극적인! 채널A의 미래를 담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피로해진 간을 되살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밀크씨슬로 시작하려 합니다. 비법 아신다면 전수해주세요.
③ 숙명여대 한국어문학 / 미디어학과

경력 입사

조현진 / **채널A**
보도본부 사회부

① 낮은 이웃에게는 더 낮추고 높은 이들에게는 낮추지 않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② 매일 하루 만보를 꾸준히 걸어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③ 경인방송(OBS), 중부일보